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배병삼



‘장자’에는 포정이란 도살의 달인이 나온다. 19년 동안 소를 잡았더니 칼날이 닳지 않는 경지에 올랐단다. 뼈와 살의 사이, 근육과 심장의 결에는 미세하나마 빈 공간이 있다. 칼이 그 빈 틈새를 타고 지나갈 정도로 기술이 무르익다 보니, 수천 마리 소를 해체하여도 날이 무더지지 않더라는 것. 임금이 그의 소 잡는 장면을 보고서 문득 ‘놀라운 기술이로다!’라며 찬탄하였더니, 의연히 ‘이것은 기술이 아니라 도(道)일시다!’라고 응수했다는 사담. 2300년 세월이 흐른 오늘 다시 읽어 또 통쾌하다.

경지를 기성(耆聖)이라 칭하고, 예도시대 전설적 검객 야마모토 무사시는 검신(劍神)으로 추앙받는다.

반면 맹자에게 ‘도’란 윤리와 도덕의 범주에 속한다. ‘도’는 옳고·그름에 대한 판단을 바탕으로 정의를 실천할 때 얻는 이름이지 고작 절륜한 기술에 붙이는 명칭일 수 없었다. 맹자의 사상은 조선이 이어

기르는 봉건군관학교에 있어서였다. 더욱이 그는 잔학한 살해를 일삼은 간도특설대의 장교였다. 그는 여기서의 활동에 대해 중요한 증언을 남기고 있다. 일본에서 간행된 자서전에서다.

“동포에게 총을 겨누는 것은 사실이었지만, 비판을 받더라도 어쩔 수 없다. 주의·주장이야 어찌되었건 간에 민중을 위해 한시라도 빨리 평화로운 생활을 하도록 해주는 것이 칼을 쥐고 있는 자의 사명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간도특설대에서는 대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기본을 가지고 토벌에 임하였다.”(간도특설대의 비밀, 1993년)

지금 민족주의를 잣대로 그를 비판하려

영웅과 달인

받는다는 개인 행동이든 나라의 정책이든 ‘의·불의’가 판단 기준이었다. 이 속에서 의병과 의사(義士)가 나올 수 있었다. 안중근은 이런 전통의 마지막 불꽃이다.

최근 KBS에서 방영된 백선엽 장군의 이력을 두고 시비가 분분하다. 그가 6·25 동안에서 거둔 전공은 혁혁하다. 30대 초반의 나이에 전군을 통솔하는 참모총장에 오를 정도였다. 그를 두고 명예원수라는 영예를 부여하자는 일각의 주장도 그의 전공만 놓고 보면 수긍이 간다. 그의 무공을 덮을만한 군인은 현대사를 털어 없을 듯하다.

그런데 그의 출발은 일제하 직업군인을

는 것이 아니다. 다만 그때나 지금이나 군인으로서의 소명에 충실하다는 점을 스스로 의심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주목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동포에게 총을 겨누는 사실에 대해 비판을 받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명령을 받으면 복종하고 집행하는 자가 군인일 따름이라는 것. 그가 기술주의 교육, ‘일본식 도’의 가치를 훈련받았던 사람인데 주목해야 하리라. 거꾸로 백선엽은 전투의 승패 이외의 잣대로써 자기를 평가하는 데 대해서 (일본식으로) 무례하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지점에서 맹자는 질문한다. 그런가? 군인은 명령을 집행하기만 하는

기계인가? 그가 총을 겨누는 사람들 속에 자기 동생이 있었더라도 어쩔 수 없으며 살해했을까? 혹은 그와 동년배로서 학병을 탈출해 독립군에 투신한 장준하와 김준엽은 고차 탈영병에 지나지 않는 것일까?

맹자는 이렇게 말한 터다. “사람에게 부끄러움이 없어서는 사람이 아니다. 부끄러움이 없는 것을 부끄러워할 줄 안다면, 부끄러움이 없으리라.” 맹자의 눈에 간도 특설대의 유능한 중위가 대한민국의 뛰어난 장군이 되었다고 해서, 영웅일 수는 없다. 나아가 노자는 이렇게 권한 바다. “많은 사람을 살상하였으면 이를 예도해야 하는 것. 전쟁에서 승리하였더라도 상례(喪禮)로서 처우해야 한다.”(殺人衆之, 以喪禮處之, 勝以喪禮處之. 도덕경 제31장) 그렇다면 누구처럼 ‘나 같은 불행한 군인이 더 이상 없기를 바란다’는 참모장 정도는 토로해야 할 것이 아닐까?

일본은 유교국가인 적이 없었다. 그곳은 사무라이의 나라였고, 사무라이는 그저 명령에 복종하는 자였다. 명령대로 처리하거나 못하느냐, 기술의 수준에 따라 보상이 다를 뿐이었다. 조선은 선비의 나라였다. 선비는 군주의 명령이든, 국가의 정책이든 스스로 그 정당성을 질문하고, 정당하면 목숨조차 바치는 사람이었다. 백선엽은 일본식 ‘달인’일지는 몰라도 조선식 영웅은 아니다.

〈영신대학교 자유전공학부 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고

광주영어방송, 전남 동부권 방송 확대 의미



윤석연

한국 문화의 세계화가 무척 거세다. 한류의 확산과 함께 많은 국내 토종 문화예술인들이 세계적인 무대에 서고 각광받고 있다. 우리 문화의 글로벌 경쟁력은 국내 무대에서 치열한 경쟁을 통해 성장해왔고 글로벌 마인드의 발전에서 비롯됐다. 향후 우리 문화가 세계의 다양한 문화와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해서는 글로벌한 문화 인식과 전통문화의 세계화는 물론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국제적인 언어 감각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영어방송은 글로벌 시대에 발맞춰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과 관광객을 위한

정보 제공과 문화 향유는 물론 국내 영어 방송 청취자를 위한 듣기 교육 강화의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또한 지역 청취자들의 국제적인 문화 인식과 언어 감각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톡톡히 할 것이라는 기대에서 시작됐다.

2009년 4월 개국한 광주영어방송은 지역 내 다양한 문화를 외국인들에게 알리는 역할과 함께 국내 청취자들의 국제적인 언어 감각을 향상시키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지난 2년간 방송통신위원회가 조사한 청취행태조사에서 광주영어방송이 서울과 부산을 제치고 인지도와 청취율에서 1위를 기록하는 것을 볼 때, 광주영어방송이 전남 전지역으로 서비스 확대하는 것은 분명 획기적인 일이다.

광주영어방송이 새로 주파수를 확보하여 오는 10월부터 전남 동부권 방송서비스를

확대한다. 이는 자치단체의 추가 비용 부담 없이 국고 지원으로 이루어졌다. 이로써 2012년 여수 세계엑스포와 순천국제정원박람회 그리고 2015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등 광주·전남지역에서 개최되는 국제행사 및 국제경기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할 수 있는 미디어 기반이 구축됐다.

이에 따라 외국기업의 투자와 관광객 유치 등 지역경제의 활성화는 물론 각종 국제행사의 순조로운 진행과 유치에 있어서 광주영어방송의 긍정적인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나아가 광주는 물론 전남 지역 청취자에게 국제적인 언어 감각을 골고루 제공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여수와 순천 그리고 광양 등 전남 동부권은 지역에서 경제적 기반이 대체로 잘 갖추어진 곳이다. 이 지역경제는 영어방송을 위한 경제적인 지원도 가능하다. 올 10월 광주 영어방송의 본격적인 방송 서비스가 확대된

다만 전남 동부권 지역에서보다 적극적으로 영어방송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지역경제 발전은 물론 곧이어 치러야할 국제행사에 상당한 도움을 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방송 서비스 권역 확대를 계기로 광주 영어방송은 새로운 편성전략과 서비스 정신으로 다양한 행사와 문화를 보다 널리 알리고 지역 청취자의 국제적인 언어 감각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국제적인 행사를 치르는데 있어서 절충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에 지역 자치단체와 공공기관 그리고 주요 행사주체들은 지역 내 유일한 영어방송 서비스 충실히 제공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향후 광주영어방송이 제공하는 다양한 방송서비스가 지역의 미래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되고 나아가 지역사회를 위한 소중한 자산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 주민은 물론 지역 사외의 따뜻한 관심과 물심양면의 지원이 더욱더 필요하다. 〈광주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의로 칼럼



허정

百年大計를 위한 복지정책

생활하기를 바란다. 예를 들자면 급격한 고령화 사회는 노인들의 기본적인 기초생활보장과 의료기 뒷받침해야 한다. 또 대부분의 국민이 대학교육을 받는 상황에서의 과도한 학자금 부담, 사교육비 급증 등 가정과 사회의 커다란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는 급격한 고령화로 향후 7년 이내에 고령사회로, 15년 이내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고 한다. 더욱이 저출산문제가 겹쳐 문제가 더욱 커지고 있다. 20년 전까지만 해도 세계 제2경제대국으로 발전했던 일본이 국가발전의 동력과 활력을 잃어버린 것을 볼 때에 우리는 현재 당면하고 있는 전방적인 복지 패러다임을 잘 설계하고 계획적인 복지국가 건설에 매진해야 한다.

10년 전에 비해 우리나라의 노인의료비는 10배 이상 증가해 전 의료비의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를 고령화 추세에 비례해 더욱더 증가되리라 생각된

다. 현재 국민 의료보험률이 5.6%인데도 불구하고 더욱더 부담이 증가될 추세에 있다. 정부에서는 당연히 부담해야 할 의무부담금마저 다른 재정형편상 부담을 못 해 2011년 기점으로 보험재정이 적자로 들어섰으며 이러한 적자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보장성 확대로 인해 보험재정의 증가는 물론 보험가입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야기시켜 의료보험의 급격한 지출을 부채질하고 있다.

정책을 입안하면서 국가백년대계를 생각하며 우리 후손들에게 과중한 부담을 남기지 않고 합리적이고 적절한 복지혜택을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최근에 무상의료라는 말들이 정치권 일각에서 이야기되고 있는데 지난번 보장성 확대로 인해 엄청난 보험재정 지출이 이뤄지고 있다. 긴급을 요하지도 않고, 통원치료가 가능한 환자들이 입원으로 전환되고 기본적

으로 본인의 식비 문제도 의료보험화 시킴으로써 보험재정을 어렵게 함은 물론 결국 그 짐을 우리 모두가 지게 되는 것이다.

현재와 미래의 복지 및 의료 혜택을 적정히 받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의료계에 투자하고, 특히 유능한 의료인의 양성과 수련을 위한 정책과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오늘의 최고 의료 수준을 이루어낸 의료인들이 커다란 자부심과 사명감을 갖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역할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단순히 인기에 영합하기 위해 무조건 배는 식의 의료 및 사회보장정책은 남미나 유럽의 국가 재정 사태에서 보듯이 국가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현재는 물론 미래 20, 30년을 내다보는 체계적이고 분석적인 정책이 절실한 시기다.

국가와 국민은 오늘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자손손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것이기 때문에 복지정책은 더욱더 신중하게 추진돼야 한다. 〈에덴병원장〉

국제결혼 알선업체 사기 행위 철저히 근절을

전남·북 농촌에는 국제결혼을 통해 들어온 외국인 여성들이 아주 많다.

그런데 최근 결혼을 알선했던 회사들이 외국인 여성들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 등을 미리 확보해뒀다가 나중에 가출을 부추긴 뒤 술집이나 모텔 등으로 유인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 걱정스럽다.

따라서 지자체가 나서 이런 악역 국제결혼업체들이 사기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길 바란다.

우선 외국인 여성의 국내 이주와 결혼을 담당하는 업체들의 영업행위 자체를 허가제로 바꿔야 한다.

그리고 업체들을 파악해 위법 사례가 없는지 끊임없이 모니터링 해야 한다.

또한, 한두 차례 불법 행위나 문제점이 발견돼 경고조치 이상의 주의를 받은 업체는 국제결혼 알선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고 재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제재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면 한국으로 들어오기 위해 위장 결혼하는 외국인 여성들을 막을 수 있고, 국제결혼업체들의 부당한 행위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다시는 농촌총각들이 브로커들의 부당한 행위로 상처입고 엄청난 결혼비용까지 날리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말이다.

▲김삼욱·목포시 대방동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교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6메일 opinion@kwangju.co.kr

시설

광주서 배출한 문화인력 갈 곳이 없다니

광주에서 양성된 문화전문 인력들이 갈 곳이 없다고 한다. 광주시가 지난해 문화 관련 기업체 67곳을 육성하면서 맞춤형 인력 400여 명을 양성했으나 이들 중 상당수가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요인은 업체들이 대부분 영세해 고급 인력을 뽑지 못하고 신규 채용을 미루고 있다는 데 있다. 따라서 전년 대비 인력 중 3분의 1 가량이 광주시가 아닌 서울이나 경기도 등지로 진출해 인력양성 취지가 효과를 반감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례로, A업체는 지난 1일자로 2D에니메이션 교육을 수료한 10명을 뽑기로 했으나 사무실과 장비를 갖추지 못했으며 채용을 미루는 현재 대기 중이라고 한다. B업체 역시 3D컨버팅 교육과정을 이수한 40명을 채용할 계획이었으나 준비가 안됐다는 이유로 무기한 연기한 상태다.

광주시가 문화 관련 업체를 육성하고, 전문인력을 양성에 실패할 기술이

는 것은 문화로 부와 고용을 창출하지는 못한다. 전국 최초로 광주에 지정된 문화 산업투자진흥지구 활성화를 통해 문화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의지의 일환이다.

그럼에도 광주시가 유치 또는 육성한 지역업체가 대부분 임금과 복지 등이 열악한 영세업체라니 그 취지나 의의와 정면 배치된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런 현실에 지역에서 양성된 전문인력이 서울과 경기도 등지로 빠져나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광주시는 무엇보다 문화산업진흥지구에 걸맞는 문화기업을 유치하는 게 급선무다. 거기에는 세제 분야만이 아니라 지원 등 혜택을 줘야 할 물본이다. 영세업체에 대해서도 인력양성 지원을 통해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문화산업의 기반이 되는 관련 업체와 전문인력이 제 자리를 찾지 못한다면 문화수도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광주·전남 국비 확보에 총력체제 갖춰야

광주시와 전남도의 내년도 국비 확보에 ‘빨간불’이 켜졌다. 중앙 각 부처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양 시도가 국비지원을 요청한 주요 현안 사업 가운데 상당수가 누락됐다는 것이다. 지방재정 형편상 국비지원은 사업의 성과를 좌우한다는 점에서 지역 현안사업이 또다시 발목을 잡히는 것 아닌지 걱정이다.

광주시에 따르면 내년도 중앙부처에 국비지원을 요청한 141건 2조4872억 원 가운데 114건 2조1230억 원이 반영됐다. 하지만, 부처별 심의에서 탈락한 현안사업 관련 예산안이 한 톨이 아니다. 동광주 나들목~광산 나들목 간 고속도로 확장 40억 원, 광주 송정역 복합환승센터 시범사업 200억 원, 3D 융합산업 육성 320억 원 등 급속증가하는 현안사업들이 줄줄이 누락됐다.

전남도의 사정은 더욱 안 좋다. 우선 최대 현안사업인 F1 회회회 경우 내년 개최를 위해 요청한 300억 원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F1 회회회 최대 난관에

부딪힌 것이다. 또한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동축 진입도로 개설비도 전남도 예산안에서 양 시도가 국비지원을 요청한 주요 현안 사업 가운데 상당수가 누락됐다는 것이다.

특히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사업비 1000억 원 등을 비롯해 무안공항 및 여수공항 확장 사업비 등 지역 핵심 SOC 관련 국비지원을 부활시켜야 한다. 무안도 지역의 미래성장동력사업과 주요 기반시설사업이 무더기로 탈락한 셈이다.

양 시도는 치밀한 논리개발과 전략수립으로 국회심의 과정에서 누락된 지역 현안사업 관련 예산안이 한 톨이 아니다. 동광주 나들목~광산 나들목 간 고속도로 확장 40억 원, 광주 송정역 복합환승센터 시범사업 200억 원, 3D 융합산업 육성 320억 원 등 급속증가하는 현안사업들이 줄줄이 누락됐다.

전남도의 사정은 더욱 안 좋다. 우선 최대 현안사업인 F1 회회회 경우 내년 개최를 위해 요청한 300억 원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F1 회회회 최대 난관에

부딪힌 것이다. 또한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동축 진입도로 개설비도 전남도 예산안에서 양 시도가 국비지원을 요청한 주요 현안 사업 가운데 상당수가 누락됐다는 것이다.

無等鼓

한 때 천재가수로 불렸지만 오랜 고뇌와 방황으로 대중에게 잊혀졌던 임제범이 최근 ‘나는 가수다’라는 TV프로그램을 통해 단번에 재기에 성공하며 세대를 구분없이 각광받고 있다. 소위 음악계의 ‘꼰돌이’였던 그가 오랜 침묵을 깨고 다시 대중 앞에 선 것은 그가 노래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한 ‘가족’ 때문이었다.

앞에 걸린 부인에게 남편으로서 무언가를 해주어야겠다는 생각이 자신이 제일 잘 할 수 있는 노래를 다시 하게 된 이유였다.

이런 스토리가 혼신을 다한 그의 열정적이고 음악의 진정성에 상승효과를 불러와 감동을 일으켰다. 그의 삶의 이야기가 노래라는 매개체를 통해 대중과 마음으로 교감한 것이다.

얼굴 없는 가수처럼 살다 빼어난 실력과 개로 ‘비주얼 가수’로 거듭난 김범수, ‘국민 할매’에서 소통과 배려의 리더십으로 ‘국민 멘토’가 된 부활의 김태원, 슈퍼스타 K라는 서바이벌 프로그램에서 생활고를 이기며 가수의 꿈을 이룬 허각. 그들의 노래 속에는 스토리가 담겨 있어

청중에게 더 큰 감동으로 다가왔다. 이처럼 치열한 경쟁 속에서 생존과 뒤져지면 안된다.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들에게 눈길을 끌고 감동을 주는 훈훈한 스토리는 기쁨을 주고 공감을 이끌어 내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제품이나 서비스 또한 마찬가지다. 기능 혹은 성능의 기술적 지표보다 무엇이 어떻게 전달할지 성패를 가른다. ‘이야기가 세상을 바꾼다’의 저자 홍사중 대표는 “잘 만든 제품”에 “잘 만든 이야기”가 더해져야 생명력을 얻는다”고 말한다.

이제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어떤 스토리로 풀어내느냐는 것이 화두가 됐다. 이를 위해서 제품 기획부터 개발, 마케팅에 이르기까지 진정성과 일관성을 가진 스토리가 스며들도록 해야 한다. 스토리텔링은 보다 인간적인 사회를 만드는 노력이고,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이 되고 있다.

이제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어떤 스토리로 풀어내느냐는 것이 화두가 됐다. 이를 위해서 제품 기획부터 개발, 마케팅에 이르기까지 진정성과 일관성을 가진 스토리가 스며들도록 해야 한다. 스토리텔링은 보다 인간적인 사회를 만드는 노력이고,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이 되고 있다.

이제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어떤 스토리로 풀어내느냐는 것이 화두가 됐다. 이를 위해서 제품 기획부터 개발, 마케팅에 이르기까지 진정성과 일관성을 가진 스토리가 스며들도록 해야 한다. 스토리텔링은 보다 인간적인 사회를 만드는 노력이고,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이 되고 있다.

이제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어떤 스토리로 풀어내느냐는 것이 화두가 됐다. 이를 위해서 제품 기획부터 개발, 마케팅에 이르기까지 진정성과 일관성을 가진 스토리가 스며들도록 해야 한다. 스토리텔링은 보다 인간적인 사회를 만드는 노력이고,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이 되고 있다.

/최재호 정경부차장 lion@kwangju.co.kr

光 卍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金鐘宅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申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매일인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홍보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여론매뉴 2200-62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정경부 2200-612	체육팀 2200-697	광고이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대표 FAX 222-4918)	사진부 2200-693	(F A X 227-9500)	(F A X 227-9500)
사회부 2200-616	조사부 2200-571	디자인국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대표 FAX 222-4267)	전산팀 2200-685	기획사업국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